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

전주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3578명 시민 안전교육 실시

전주시가 확대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확대를 통해 자전거 타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시는 올 상반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30차례에 걸쳐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 총 3,578명의 시민에게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기존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자전거 안전교육을 올리는 유치원생과 일반시민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연령별 맞춤형 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해 강사가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해왔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자전거 타기 전 점검사항, 안전하게 타는 방법, 자전거 탈 때 보호장구 착용의 중요성, 교통법규 등에 대한 이론교육, 실제 자전거

를 타보는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올 하반기에도 자전거 안전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상반기 교육 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내용을 보완해 교육을 신청한 유치원과 학교, 복지관과 자전거 시범학교 등을 찾아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 어린이교통공원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매주 수요일 6~7세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자전거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북자전거운동본부 전주지부에서도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종합경기장 내 교육장에서 시민들을 위한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고 있어 자

전거를 배우고 싶은 시민이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 안전교실에 참여한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이들이 자주 접하는 자전거는 자칫 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교육받을 기회가 생겼다고 교육에 신중했다"며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교육을 해주니 편리하고 아이들의 호응도 높아 기쁘게 된다"며 더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참여소감을 밝혔다.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시민 자전거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문화가 생활 속으로 정착돼 생애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익산교육지원청, 2차 교사 연수 '호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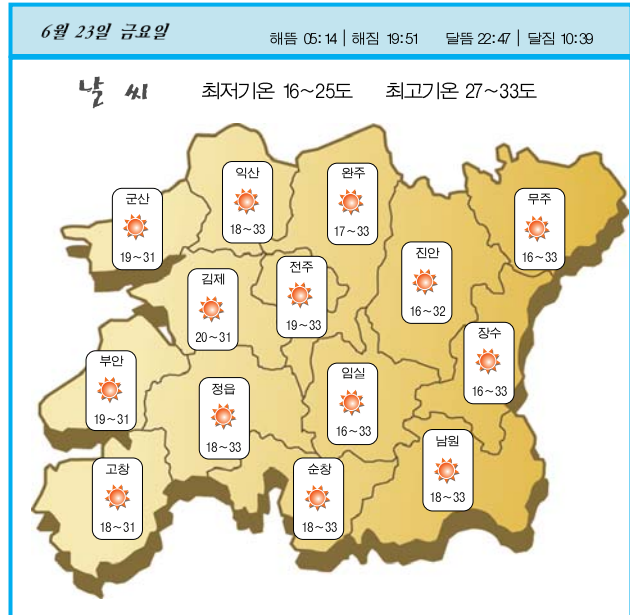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류지복)은 22일 '자유학기 수업고민'을 함께 풀어나가는 유쾌·상쾌·통쾌 교사 2차 연수를 실시했다.

중학교 자유학기가 전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3차까지 계획된 이번 연수는 자유학기 교과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고민을 현장감 있는 수업적용형 연수로 풀어나가 관내 중학교 교사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번 연수는 작년 12월에 구성된 익산자유학기전문학습공동체와 익산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기획, 설계한 프로젝트 연수로서 3차 연수까지 계획되어 있다. 1차 지난 8월에 이어 2차 연수가 22일 교사들의 열띤 호응 속에 실시되었으며 향후 7월 7일 놀이연수가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3차에 걸친 연수가 모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체험형 수업적용형 연수로서 모뎀형 수업으로 구성되어 강사와 호응을 같이하면서 밀도있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익산=정영원 기자



전북대 이회선 교수, '스프링거 네이처' 학술상 수상

전북대학교 이회선 교수(생물환경화학)가 '스프링거 네이처'가 발간하는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저널(이하 ABC 저널)에서 학술상과 최우수논문상을 연속으로 수상했다.



이 교수는 네이처 자매지에 교신지자로 5편 발표하는 등 SCI급 논문 300편(상위 1% 논문 60편)을 발표하는 등 지난 25년 동안 선도적 연구를 수행한 공적을 인정받아 ABC 저널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또한 지난해 ABC 저널에 발표한 논문 중에 가장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공적을 인정받아 최우수 논문상도 함께 수상했다.

이 교수는 신약개발(항당뇨, 항알러지, 항암제, 항진드기, 항혈소판, 장내미생물 등), LED 응용분야, 천연비오 약용소재 개발 등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간 학술상 5회, 화학학술대상, 기창학술대상, 교육부에서 최우수논문상 2회, Ciba-Geigy Young Scientist Award, 국내외 학회에서 젊은과학자상 2회, 국가행정연수원 우수특허상, 과학기술총연합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한국응용생명화학회, 한국농약학회, 한국식품과학회 등에서 우수논문상 25회를 수상한 바 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협회 회장, Nature Publishing Group 편집위원,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SCJ) 편집위원, SCPOUS 저널 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편집위원, SCJ급 저널 Advances in Chemistry 편집위원, SCPOUS 저널 Open Bioactive Compound Journal 편집위원장을 수행하고 있다.

/정해은기자

인천중앙가축병원 김형년 원장, 변함 없는 후배 사랑

한 해도 쉬지 않고 15년째 3억 1천만 원 모교에 장학금 기탁

벌써 15년이다. 강산이 한번 변한 후에도 후배들을 향한 그의 사랑은 쉽다. 김형년 인천중앙가축병원장(67·수의학과 67학번)의 이야기다.

그가 장학금 2천만 원을 들고 모교인 전북대학교를 찾았다.

수의학과 후배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장학금 기부를 시작했던 2003년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찾고 있는 그다.

15년째 그가 보내온 사랑만도 벌써 3억 1천만 원에 이른다.

전북대 수의대를 졸업하고 동물병원을 운영해 온 그는 병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모교 후배들에게 사랑을 베풀겠다는 마음을 먹어왔다. 학창 시절 대학에서 장학금 등을 받으면서 어려움 속에서 모교와 후배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2003년 첫 해, 그는 평소 생각에 만 그치고 있던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리고는 2천만 원의 장학금을 대학에 보내면서 15년의 사랑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날 전북대는 이남호 총장을 비



롯한 본부 보직자들이 참석해 발전기금 기탁식을 열어 그를 맞아 수년째 보내준 애정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전북대는 김 원장의 소중한 뜻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수의대가 있는 익산 특성화캠퍼스 첨단 강의실을 김형년 홀로 이로

새겨 예우하고 있다.

김형년 원장은 "어려웠던 학창시절, 대학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후배들은 그러한 시간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에서 시작된 일이 많은 세월이 흘러왔다"며 "많은 후배들이 매년 장

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나의 마음이 더욱 풍족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후배들 역시 지금은 많은 것들을 잊지 말고 사회에 나갔을 때 또 다른 후배들에게 돌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해은기자

인권우호 학교문화 만들기 초·중학교 교사들 대상 직무연수 수강생 모집

전북도교육청이 초·중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만들기 직무연수를 개설,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8월 여름방학 5일간 30시간을 이수하는 프로그램으로 초·중·고교사 20명, 중·고교사 20명 등 40명이다.

구체적인 연수 프로그램은 반차별

감수성, 교권 다시 읽기, 학교폭력, 노동인권 등을 주제로 한다.

또 학생인권을 둘러싼 쟁점 토론과 인권우호적 학교문화에 관한 체크리스트 만들기 등이다. 역사를 통한 인권의 의미, 영화 '우리들'을 보고 차별에 관한 이야기도 나온다.

/정해은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이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전내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바라보고

행복한 교사와 학생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리밭' 역할을 재검토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